

논단
1
River & Culture



오민근 | Regional & Urban
Creative Consultant / CRCG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UCCN 지문위원
(ufo1009@paran.com)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하천경관의 보전과 활용 8 익산 고도보존경관가이드라인과 하천경관가이드라인(1)

익산 고도보존경관가이드라인 작성 개요와 문제점

익산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보존법”이라 함)에 의한 고도(古都)로서, 경주, 공주, 부여와 함께 지정된 도시이다. 다만 이들 3개 지자체와 다른 것은, 고도로서 지정된 곳이 시가지가 아니라 금마면이라고 하는 면소재지 일대인 것이다.

2010년도에는 익산고도보존계획과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되었고, 2011년도 12월부터는 익산 고도보존경관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되었다.

6개월의 기간으로 수행된 이 가이드라인은 ‘경관’과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 수립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고도보존법에서도 경관에 관한 부분에서는 계획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없었다. 따라서 익산고도보존계획에서는 익산 고도지역의 경관에 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고 있고, 익산 기본경관계획에서는 익산 고도지역의 경관에 관한 부분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이 모든 것이 관련 법률의 근거규정 부재와 법률간의 위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

이 아니라 익산시에서 임의로 수립한 것이어서, 법적 실효성 즉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고도보존법)에서 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거나, 익산시의 고도보존 조례에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로서는 이를 통해 고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위한 절차적 근거와 내용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혹은 현행 가이드라인의 시행을 통해 경험과 사례를 축적한 후에 고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고도보존경관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본 호부터는 익산 고도보존경관가이드라인 수립을 사례로 하여 익산 고도지역의 특성을 구성하는 하천경관과 관련한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고도지역의 '고도다움'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축을 찾다.

백제시대를 배경으로 고도보존법에 의한 고도로 지정된 익산은, 2012년 3월 5일에 고도보존법상 '고도지구'로 지정된 금마면 시가지 일대를 포함하여, 미륵사지가 자리하는 미륵산과 금마면 배후의 용화산 등 수많은 역사문화유산이 존

재하고 있다. 고도보존계획에서는 현행 고도지구를 포함하여 이러한 역사문화유산을 가급적 모두 포함하는 큰 면적을 '고도보존지구예정구역'으로 제시하였는데, 실제 고시된 결과로는 예정구역의 약 1/34에 불과한 면적이 '고도지구'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뒤로 하더라도, 백제시대 대표 문화유적인 미륵사지가 미륵산과 함께 자리하고 있고, 백제 무왕의 왕궁터와 제사를 모시던 제석사지가 발굴되었음에도, 이러한 중요하고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는 고도지구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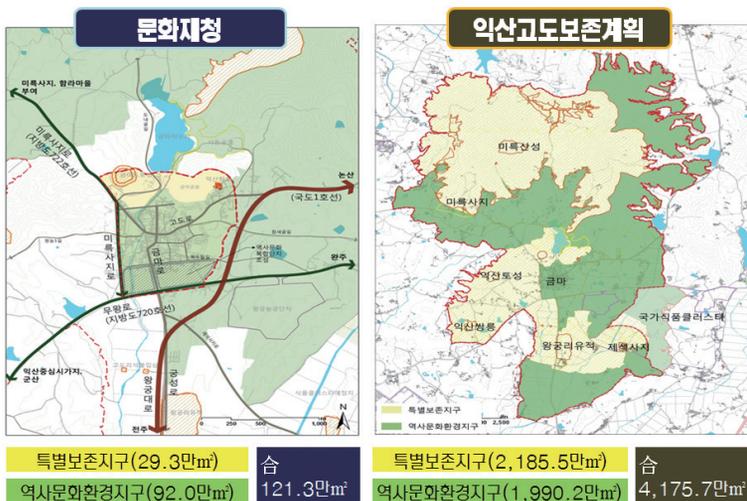
〈표 1〉 4개 고도 지자체의 고도지구 지정면적 비교

구분	경주	공주	부여	익산
특별보존지구	216.7	115.7	191.0	29.3
역사문화환경지구	60.4	87.3	101.4	92.0
계(만㎡)	277.1	203.0	292.4	121.3

더욱이, 다른 고도 지자체와 지정면적을 비교해 보아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즉, 경주, 공주, 부여의 경우는 고도지구 지정면적 중에서 특별보존지구 지정면적이 역사문화환경지구 면적의 약 1.5~3.5배 가량 더 많은데 반해, 익산의 경우는 오히려 특별보존지구가 역사문화환경지구의 약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형평성의 문제보다도, 고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미륵사지와 왕궁터 등의 백제시대를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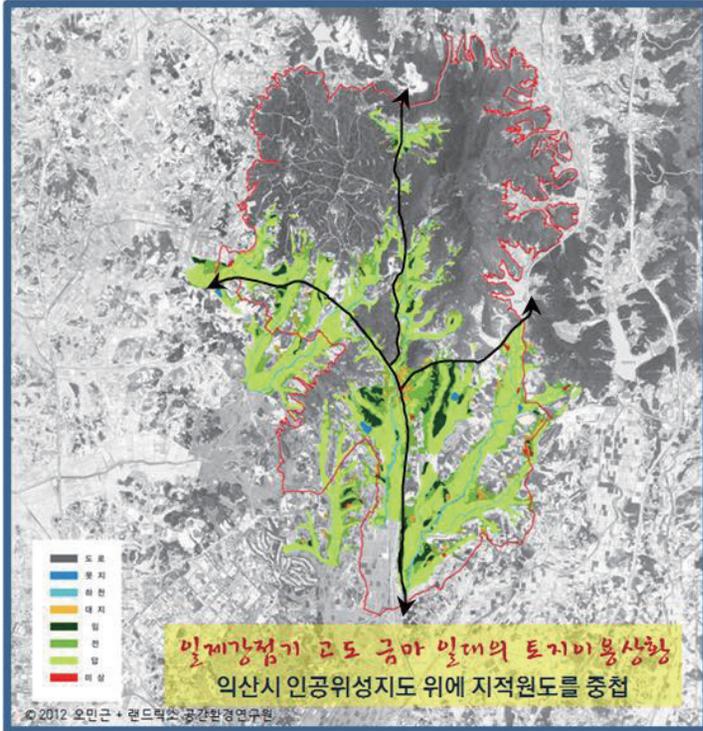
타내는 역사문화유산지역이 왜 제외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진행된 고도보존경관가이드라인은 우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익산고도보존계획과 상대적으로 관련이 있는 익산기본경관계획을 상위계획으로 간주하여 검토한 결과, 익산의 '고도다움'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축을 찾는 과



© 2012 오민근 · 랜드믹스 공간환경연구원

〈그림 1〉 고도지구 지정고시 면적과 고도보존계획상 고도보존지구 예정구역 면적



〈그림 2〉 지적원도에서 찾아낸 옛길(실선)과 옛 물길(가운데 시가지를 관통하는 푸른 물길)의 위치
▷ 북쪽으로 향하는 화살표의 왼쪽이 미륵산, 오른쪽이 용화산이다.

정을 거쳤다.

옛부터 존재해오고 있는 미륵산과 용화산을 바탕으로 하고, 지적원도를 통해 고도지역의 옛길 3개 노선(국도 1호선과 지방도 722호, 아리랑길)과 옛 물길(현 옥룡천)을 찾았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관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수준으로 선정하였다. 즉, 미륵산과 용화산이라는 고도의 특성을 형성하는 자연풍경의 보전과 옛길과 옛 물길의 보전이 그것이다. 이후에 미륵산과 용화산은 고도지역 경관의 바탕이 되

는 조망경관의 대상이 되어 조망경관 가이드라인이 도출되게 되며, 옛길은 현재의 길의 형태를 보존하면서, 도로확장 시의 경우에는 현재의 길 중심을 양쪽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근거가 되며, 옛 물길은 시가지 내를 지나는 물길과 시가지 바깥을 지나는 물길로 나누어 경관가이드라인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둘째, 고도다움의 기반으로 '조망'과 '색채' 경관가이드라인 원칙을 제시하다.

이와 같이 익산 고도지역의 경관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축을 찾아내고, 이러한 축에 의해 형성되는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망'과 '색채'의 관점에서 경관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조망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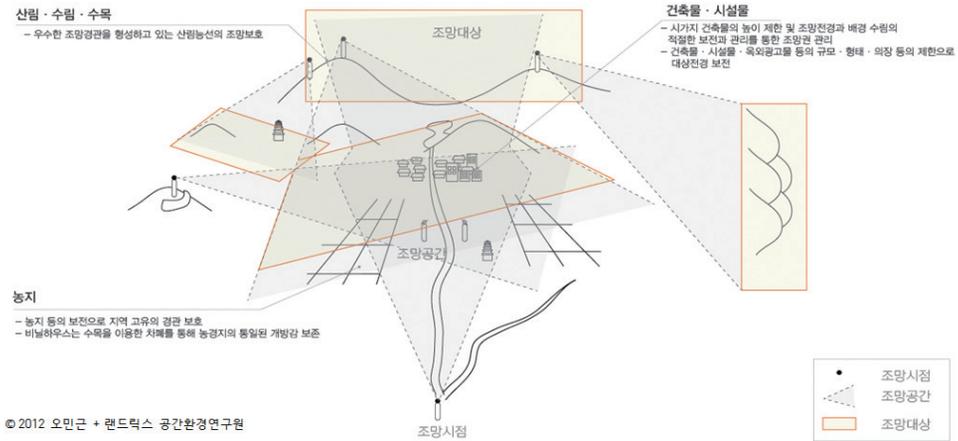
즉, 고도지구인 금마면 시가지의 배경이 되는 미륵산과 용화산에 의해 형성되는 스카이라인을 개발행위가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빨강 및 파랑 등의 원색을 사용함으로써 고도다운 차분한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망경관관리의 개념도를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익산 고도지역의 조망경관

▷ 가운데의 흰 건물이 금마면 시가지내의 한울아파트이며, 왼쪽으로 솟은 산이 미륵산, 오른쪽이 용화산으로, 고도지역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그림 4〉 조망경관의 개념과 관리 원칙

색채에 관하여

색채의 경우는 주요 조망점에서의 풍경을 분석하여 고도 지역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색을 찾아내었다.

〈그림 5〉와 같이 주요 경관유형별로 색채경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의 산 고도지역을 대표하는 색채들이 〈그림 6〉과 같이 도출되었다.

색채경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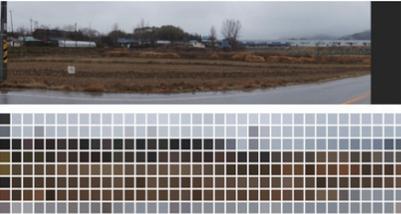
원경(遠景)



농경지풍경



마을풍경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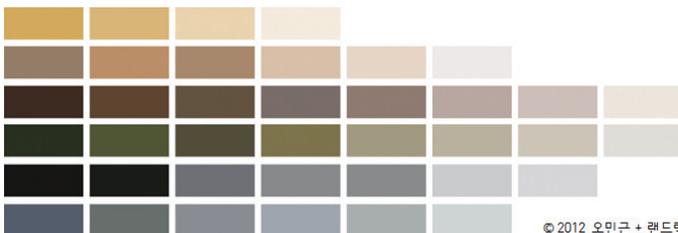


마을풍경 2



© 2012 오민근 + 랜드릭스 공간환경연구원

〈그림 5〉 주요 경관유형별 색채경관의 관리 위한 색 분석



〈그림 6〉 색채경관의 관리 위한 색 분석 결과

〈그림 6〉과 같은 색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색들은 '고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에 필요한 색으로써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다양한 요소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경관의 바탕을 파악하고 고도다운 분위기를 가꿔나가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하여 고도의 경관유형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작성될 수 있는 것이다. 🌐